

【書評】

歐陽哲生, 『古代北京與西方文明』,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8.

孫 成 旭*

I. 들어가며

개항개방 이후 중국학계의 전근대 중서(中西) 교류사 연구 경향을 거칠게 구분하면 2000년 전후로 그 성격이 나뉜다. 2000년 이전에는 중국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외국 연구서의 번역이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20년 동안은 외국 사료의 수집·정리·번역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중국 문헌 중심의 연구를 점차 탈피하고 있다. 특히 『예수회 선교사 중국 서간집(耶穌會士中國書簡集)』, 『마하우 보임 문집(葡彌格文集)』, 『마테오 리치의 중국 찰기(利瑪竇中國割記)』, 존 배로우의 『중국 여행(馬戛爾尼使團使華觀感)』, 『포르투갈인의 중국 견문록(葡萄牙人在華見聞錄)』, 『19세기 러·중관계: 자료와 문헌(19世紀俄中關係: 資料與文獻)』 등 서양인의 견문록과 서한 등의 중국어 번역이 크게 늘면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고대 북경과 서방 문명(古代北京與西方文明)』의 저자인 어우양저성(歐陽哲生) 교수도 ‘京華往事叢書 총서’의 主編을 맡아 레지널드 존스턴(Reginald Fleming Johnston), 줄리엣 브레돈(Juliet Bredon) 등의 견문록을 소개한 적이 있다.

어우양저성의 『고대 북경과 서방 문명』은 중국학계의 중서 교류사 연구 수준을 잘 보여주는 노작이다. 저자는 북경을 방문했던 서양인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들의 ‘북경 경험’을 구체적 드러내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르코 폴로 여행기』 등 元代 서양인의 여행기를 시작으로 16~18세기 북경에 체류했거나 방문했던 선교사와 외교 사절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그동안 중국에서 출판된 번역 사료와 방대한 영문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에 많이 다루어졌던 마테오 리치, 매카트니 사절단뿐만 아니라, 예수회 소속의 프랑스 선교사,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 네덜란드·포르투갈·러시아 사절단 등의 ‘북경 경험’을 추적하였다.

기존에 북경과 관련된 중서 교류사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책의 ‘導論’에서도 20페이지에 걸쳐 관련 연구사를 정리하고 있다. 『마르코 폴로 여행기』 연구, 明末 清初 선교사의 활동, 청대 러시아 사절단의

* 山東大學 歷史文化學院 / son79@126.com

활동, 서양 사절단과 대외관계사, 漢學 연구, 중서 문화교류사 등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집중되어 있다. 북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의 활동과 기록을 통시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II. 북경이라는 공간

그렇다면 수많은 공간 중 왜 북경인가? 북경은 원·명·청의 古都로서 중화제국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으로 기능하였다. 唐代 이래 국제도시였던 장안을 대신해서 중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한 공간의 경험에만 주목하다 보다 보면 그 밖의 공간에서의 경험을 주변화시킬 수 있으며, 경험의 전체적인 맥락을 단절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서양인의 경험은 주로 제한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의 연구범위인 16~18세기는 중국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역을 목적으로 개방된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된 장소에서만 교류가 허용되었다. 서양인의 자유로운 내륙 이동은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황제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서양인만 내지로의 이동이 가능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북경이었다. 중국에서 주요 체류지 역시 북경이었다. 그러므로 북경 관련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저자의 연구 초점도 자연스럽게 북경에 맞추어질 수 있었다.

저자는 이들의 ‘북경 경험’이 ‘서방 북경학’의 원천이었다고 얘기한다. ‘북경 경험’ 관련 기록이 ‘서방 북경학’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북경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이 북경을 특별히 연구나 저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가 강조하듯, 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북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북경에 관한 기록 역시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다. 이 시기 북경을 방문했던 이들이 선교사이거나 외교 사절이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이들은 목적이 매우 뚜렷한 북경 방문자로 중국을 종교적 혹은 상업적으로 개방시키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는 帝都인 북경 밖에 없었다. 황제로부터 특별한 윤택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경에 대한 서양인의 관심이 컸던 것은 당연했다.

서양인의 뚜렷한 목적성으로 인해 북경은 중서 간 교류와 충돌의 공간이 되었다. 서양인 선교사와 외교 사절은 중국 황제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기 입장을 강하게 내세워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중국 황제는 그들의 요구를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다. 이러한 교섭은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 이래 서양의 외부로 확장에 따라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저자는 그 과정에 점철된 중국과 서양 간 ‘차이’와 ‘마찰’의 연속성을 추적한다. 저자는 북경에서 펼쳐진 그 교섭의 연결 고리를 추적한다. 북경을 방문한 개별적 그룹과 사건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북경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가던 서양의 중국 지식과 인식의 역사적 맥락을 놓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Ⅲ. 서양의 확장 : 선교사와 사절단

『고대 북경과 서방 문명』은 16~18세기 북경을 방문한 거의 모든 서양인 그룹을 다루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 대부분은 선교사와 외교 사절이었다. 이 시기 선교사는 종교적 확장을 원했고, 외교 사절은 상업적 확장을 원했다. 그들은 중국의 '배적'과 제한된 수용 속에서 중화제국의 정점인 북경을 경험하였다.

본서는 총 8장에 걸쳐 구성되어 있다. 1장을 제외하곤 모두 선교사와 외교 사절단의 '북경 경험'을 다룬다. 1장은 마르코 폴로, 오드리쿠스 드 포르투 나오니스(Odoricus de Portu Naonis) 등 원나라 大都를 여행했던 서양인의 견문록을 고찰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들 견문록 우선 다룬 것은 저자가 이 시기를 북경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서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견문록은 서양인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중국에서는 외부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지리적 인식이 유럽까지 확장되었다. 서양의 범위가 漢代 '西域'에서 唐代 '西天'을 거쳐 '西方'으로 확장된 것이었다. 중서 간 관심의 확장 속에서 본격적인 중서 교류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2, 4, 5, 7장에서는 선교사를 3, 6, 8장에서는 외교 사절단을 다루고 있다. 각 장의 분석대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장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가브리엘 드 마갈랑이스(Gabriel de Magalhães), 루이 르 콕트(Louis Le Comte) 등 17세기 예수회 선교사
- 3장 17세기 러시아 사절단
- 4장 18세기 예수회 소속 프랑스 선교사
- 5장 18세기 초 '典禮論譯'으로 교황청이 청나라에 파견한 투르논(Charles Thomas Maillard de Tournon)과 마자바르바(Carlo A. Mazzabarba)
- 6장 16~18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사절단
- 7장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
- 8장 영국의 매키타니(George Macrtney) 사절단과 애머스트(William Pitt Amherst) 사절단

각 장은 우선 관련 문헌 자료를 개괄하고, 그들의 북경에서 활동과 관련 공간을 추적한다. 서양인의 북경 경험은 18세기 유럽에서의 '중국풍' 유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북경의 건축·문화·회화 등에 영향을 주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경은 국제적이며 다원화된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이와 같은 중서 교류의 영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중서 문화교류사 연구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표면적 양상에만 주목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중서 교류는 상호 간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교류의 양상이 비대칭적이었다고 강조한다. 선교사와 외교 사절단의 '북경 경험'은 서양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였지만, 중국의 서양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양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접근하였고, 제한적 허용을 받은

선교사와 외교 사절단이 북경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방문은 한 시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소수의 경험이지만 16~18세기 ‘북경 경험’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반면,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엄격히 금했다. 물론 廣東이나 福建 지역에서 상업을 목적으로 몰래 바다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목적지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 국한되었다. 그 이상을 넘어 유럽까지 나아가진 않았다. 국가나 예수회와 같은 특정 기구의 지원을 받은 출국은 없었다. 서양인의 ‘북경 경험’이 축적되어가는 동안 중국인의 ‘유럽 경험’은 전무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중화제국의 상대적 안정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본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서양은 확장과 변혁을 거듭하였고, 그 영향으로 18세기에 이르면 중화질서의 이외 지역에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위기가 전반적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 중국은 康乾盛世를 구가하고 있었다. 중국의 외부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지만, 중국 내부는 안정적인 盛世를 누리며 개방과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전통적인 專制 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때 성세의 위기가 생겨났다. 저자는 康乾盛世에 잠복해 있던 위기로 내부의 민족 갈등 심화, 해양으로 확장 능력 결여, 문화 통제에 의한 혁신 동력 상실, 사대부의 해외 지식과 모험 정신 부족 등 4가지 점을 지적한다.

康乾盛世의 위기론은 16~18세기 중서 교류를 19세기 중서 간의 격차로 연결된다. 저자는 盛世에 잠복한 위기로 중서 교류의 비대칭적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비대칭적 교류로 19세기 중국과 서양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안정적인’ 중국과 빠르게 변혁 중인 서양이 접촉하였다. 서양은 자신들의 확장을 위해 중국의 변화를 끌어내려 노력하였다. 반면 중국은 외부로 눈을 돌리기보다 내부의 안정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렇다면 비대칭적 교류는 왜 발생했는가? 본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清末 적지 않은 지식인이 비판했던 군주제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모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군주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에 성공하였다. 저자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는 대신 매킨타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방문했던 존 배로우(John Barrow)의 말로 책을 마무리 짓는다.

조지 스톤트 경이 말한 것과 같다. “이곳에 보기 드문 위대한 경관이 출현하였다. 기백이 넘치는 이 대국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위대한 정치 실체와 결합 되길 원하며, 전국 모두가 한 명의 제왕에 고분히 복종한다. 그들의 법률, 풍속 심지어 언어까지 시종 변화가 없다. 이러한 면에 있어 그들과 다른 인류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곳과 교제하길 원치 않으며, 다른 곳을 점령하길 기도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현실적인 관찰이며, 중국이 강력한 하나의 예시 중 하나이다. 이 인류는 권력과 비교해 전통관념의 지배를 더 쉽게 받는다.

존 배로우의 평을 빌리자면, 제국의 위대함이 변화를 가로막고 전통관념의 지배에 안주하도록 만든 것이다. 胡適 연구의 권위자이자 평생 근대 자유주의 사상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다운 결론이다. 그는 1930년대 중국에서 불었던 ‘全盤西化’를 좇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정치문화의 문제점을 간과하지는 것이 아니다. 높은 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일찍이 자본주의 맹아가 등장했던 중국이 19세기 좌절했던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 되묻는다.

IV. 나가며

본서는 16~18세기 중서 교류의 양상을 북경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그 이면에 존재했던 중국의 위기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19세기 중서 간 격차를 이해하고, 역사학자로 현재 중국에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은 북경을 방문한 거의 모든 그룹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중국어와 영어로 된 문헌을 섭렵하여 실증적으로 서양인의 ‘북경 경험’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30페이지에 달하는 참고문헌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현재 중국학계의 중서 교류사를 집대성한 연구서라고 할 수도 있다.

저자가 12년 넘게 한 주제에 천착해 만들어 낸 노작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책을 처음 손에 들었을 때 기대했던 부분이 다 해소되진 못했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자가 집중하는 부분과 독자로서 기대했던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서는 ‘서방 북경학’의 원천이 된 선교사와 외교 사절단의 ‘북경 경험’을 매우 세밀하게 그려냈지만, 그들의 ‘북경 경험’이 서양에서 어떻게 지식 담론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다. 이에 관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등의 영향을 받아 제국주의 권력과 담론의 관계를 추적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공간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저자가 북경이라는 공간을 발굴해 낸 만큼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의 ‘북경 경험’이 어떻게 서양 내부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진다.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 식의 연구가 갖는 획일적인 비판이나, 제국주의 침탈과 대항이라는 이분법적 연구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가 ‘서방 북경학’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서양 내부에 관련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북경 경험’은 서양에서 ‘중국 담론’이 형성되는 여러 갈래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경로는 일방향이 아니었다. 북경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경험자가 귀국하면서 그 경험은 서양의 중심으로 유입되었고,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었다. ‘북경 경험’이 유경험자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과 유통을 통해 확산되며, 훗날 북경을 방문하는 다른 선교사와 외교 사절에게 영향을 끼쳤다.

서양인들의 ‘북경 경험’과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서 인용한 존 배로우의 언급처럼 서양은 중국을 인정하면서 부정했다. 중국은 ‘위대한 정치 실체’가 존재하는 곳이자 전통관념의 지배를 받는 정제된 곳이었다. 이와 같은 양가적 관찰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찰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북경이라는 공간에 닿은 제국주의의 시선은 다른 ‘미개’의 지역과는 달랐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북경 경험’이 중서 교류사에서 갖는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저자는 ‘북경 경험’의 연속성과 중국과 서양 간의 비대칭적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 연구의 초점을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실제 경험의 공간에 한정했다. 16~18세기에 북경을 방문한 다양한 그룹이 남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적 맥락을 짚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오랜 추적을 통해 본인이 명명한 ‘서방 북경학’의 원천인 ‘북경 경험’ 연구의 한 축을 세운 셈이다. 저자는 본서의 후기에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16~18세기에 그치지 않고 근대 ‘북경 경험’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후속 연구에서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 다른 한 축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 이 서평은 2018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되었음.